

부록 · 25분

용어집

회차 사이에 끼워 쓰는 참고 덩입니다. 막히는 말이 나오면 여기로 돌아오세요

쓰는 법

-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하는 데크이 아닙니다. 참석자가 말을 못 알아들을 때 해당 장만 띄우세요.
- 1회차 도입부에 5분간 훑고 지나가는 용도로도 좋습니다.

기본

이 다섯 개면 첫 회차는 넘어갑니다

01

언어 모델

다음에 올 말을 맞히는 프로그램

02

프롬프트

모델에게 주는 글 전체 — 지시 + 맥락 + 자료

03

토큰

과금과 길이의 단위. 한국어 한 글자가 1~2토큰

04

환각

그렇듯하게 틀린 답. 고장이 아니라 구조

05

학습 데이터 시점

모델이 배운 자료의 끝. 그 이후는 모릅니다

기본 다섯

- 토큰을 설명할 때 "출력이 입력보다 5배 비싸다"를 같이 말해두면 비용 회차가 쉬워집니다.
- 환각을 "고장"으로 설명하면 참석자가 "고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구조라고 말하세요.
- 학습 데이터 시점은 "최신 소식을 왜 모르나"의 답입니다. 도구 사용과 이어서 설명하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기억한다"는 느낌의 정체

01

컨텍스트 창

모델이 지금 한 번에 보는 전부

02

컨텍스트 넘침

창이 차서 앞부분이 밀려나는 것

03

컨텍스트 로트

넘치기 전에도 잡동사니가 쌓여 품질이 조용히 떨어짐

04

압축

최근은 원문, 앞부분은 요약으로 바꿔 버티는 방식

05

메모리

대화 밖 파일에 남겨 다음 세션에 다시 읽는 기록

압축과 메모리를 헷갈리면 "요약했으니 기억하겠지" 하다가 다음 날 다시 설명하게 됩니다.

대화과 기억

- 컨텍스트 로트가 무서운 이유는 오류가 안 난다는 점입니다.
- 긴 대화에서 답이 나빠지면 지시를 고치기 전에 새 대화를 여는 것이 먼저입니다.
- 압축은 이번 대화 안에서 버티는 것, 메모리는 다음 대화로 넘기는 것 — 이 구분만 잡으면 됩니다.

자료 다루기

찾아 붙이는 쪽의 말들

01

RAG · 그라운드링

문기 전에 관련 자료를 찾아 함께 넣는 방식

02

임베딩

문장을 숫자 목록으로. 뜻이 가까우면
숫자도 가깝습니다

03

의미 검색

임베딩으로 뜻이 가까운 문서를 찾는 검색

04

청크

문서를 검색용으로 쪼갠 조각

05

재정렬(rerank)

찾아온 조각을 한 번 더 걸러 순서를 매김

06

파인튜닝

모델 자체를 추가 학습. 사실이 아니라 말투·형식용

자료 다루기

- 마지막 줄을 꼭 짚으세요 — “우리 데이터로 학습시키면 되지 않나”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 파인튜닝은 말투·형식을 바꾸는 것이고, 사실을 넣는 것은 그라운드입니다. 이 둘이 가장 자주 뒤섞입니다.
- “예시를 붙이는 것도, 자료를 붙이는 것도 학습 아닌가요”가 나오면 — 맞는 말입니다. 네 가지 다 학습이고 어디에 남느냐가 다를 뿐이라고 답하세요. 네 갈래 표는 「AI 기술 기초」덱의 ‘학습의 종류’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 청크와 재정렬은 “검색이 왜 엉뚱한 걸 가져오나”를 설명할 때 필요합니다. 그 질문이 나오기 전에는 넘어가도 됩니다.

도구와 에이전트

손을 달아주는 쪽의 말들

01

도구 사용

모델이 외부 기능을 호출. 실행은 시스템이 합니다

02

에이전트

목표를 받아 스스로 도구를 골라가며 반복하는 구조

03

MCP

도구를 붙이는 표준 규격

04

서브 에이전트 · 위임

큰 일을 나눠 다른 에이전트에게 맡기기

05

HITL (사람 개입)

되돌릴 수 없는 동작 앞에 사람 승인

06

가드레일

속도를 올리면서 틀리는 것을 막는 장치 전반

도구와 에이전트

- “실행은 시스템이 한다”가 승인 지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한 줄이 보안 회차의 뿌리입니다.
- 모델은 “이 도구를 이렇게 부르자”고 말할 뿐이고, 부를지 말지는 우리 쪽 코드가 정합니다.
- 에이전트와 도구 사용의 차이는 반복 여부입니다 — 스스로 다음 도구를 고르며 도는 것이 에이전트입니다.

모델과 비용

돈이 새는 자리의 말들

01

모델 급

상급 · 중급 · 경량. 성능과 가격이 함께 움직입니다

02

입력/출력 토큰

출력이 대략 5배 비쌉니다

03

캐싱

매번 같은 앞부분을 재사용해 비용을 줄이는 것

04

생각 깊이

답하기 전 얼마나 따져볼지. 높을수록 느리고 비쌘

05

크레딧

Connect 에서 사용량을 차감하는 잔액

모델과 비용

- 캐싱은 앞에서부터 정확히 일치해야 걸립니다 — 지시문 맨 앞의 오늘 날짜가 캐시를 매일 갱니다.
- 모델 급을 고르는 기준은 난이도입니다. 단순 분류에 상급을 쓰는 것이 비용이 새는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 생각 깊이는 눈에 안 보이는 비용입니다 — 같은 질문도 설정에 따라 몇 배가 됩니다.

증명하는 쪽의 말들

01

평가(Evals)

답이 맞는지 숫자로 확인하는 체계

02

골든 데이터셋

정답이 확정된 검사용 사례 묶음

03

LLM-as-judge

모델에게 채점을 맡기는 방식

04

베이스라인

도입 전에 재둔 기준값. 없으면 효과를 증명 못 합니다

05

사이클 타임

한 건을 처리하는 시간. 경영진이 가장 잘 읽는 지표

06

트레이스

요청 하나가 갈라진 호출을 트리로 남긴 기록

평가는 "답이 맞나", 성과 측정은 "사업이 나아졌나"입니다. 둘 다 필요하고 보는 사람이 다릅니다.

평가와 운영

- 재작업률도 여기 붙여 설명하세요 — AI 결과를 사람이 고친 비율, 숨은 비용의 대표입니다.
- 베이스라인이 없으면 도입 효과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한 줄이 도입 절차 회차의 전제입니다.
- LLM-as-judge 는 편하지만 채점자도 틀립니다. 골든 데이터셋으로 채점자를 먼저 검증하세요.

보안과 규제

심사에서 나오는 말들

01

프롬프트 인젝션

읽은 자료에 심긴 문장이 지시로 작동하는 공격

02

간접 인젝션

사용자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웹·문서·메일로 들어오는 형태

03

최소 권한

지금 필요한 만큼만 주고 나중에 넓히는 원칙

04

되돌릴 수 없는 동작

발송 · 결제 · 삭제 · 대외 게시

05

고영향 AI

채용 · 대출심사 · 의료 등 권익에 중대한 영향

06

AI 이용사업자

타사 AI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 대부분의 기업

보안과 규제

- 마지막 두 줄이 규제 회차의 핵심입니다 — 모델을 안 만들어도 대상입니다.
- 간접 인젝션이 무서운 이유는 사용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 되돌릴 수 없는 동작 넷(발송·결제·삭제·대외 게시)은 외우게 하세요. 승인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제품 용어

화면에서 만나는 말들

01

작업 폴더

HyperTeams — 에이전트가 건드려도 되는 폴더 범위

02

자율성 수준

HyperTeams — 어디까지 알아서 하게 둘지

03

스킬

HyperTeams — 반복하는 절차를 문서로 담은 것

04

워크스페이스

Connect — 데이터가 섞이지 않는 격리 단위

05

대화 그룹 · 부서

Connect — 대화를 묶는 것과 사람을 묶는 것

06

드라이브 · 채널

Connect — 답변의 재료,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길

드라이브는 읽히려고 두는 곳, 작업 폴더는 고쳐지려고 두는 곳입니다.

제품 용어

- 두 제품을 같이 쓰는 조직이면 이 장을 1회차에 미리 보여주세요. 용어 충돌이 가장 잦은 자리입니다.
- “워크스페이스”가 두 제품에서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 HyperTeams 의 작업 폴더와 헛갈리는 1순위입니다.
- 드라이브와 작업 폴더의 차이(읽히려고 두는 곳 / 고쳐지려고 두는 곳)를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정리

이 텍스트의 쓰임

- 1 모르는 말이 나오면 본편을 멈추지 말고 이 텍스트의 해당 장으로
- 2 아직 안 배운 말이 들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 3 본문 용어집에는 각 항목마다 자세히 보는 링크가 붙어 있습니다

달는 말

- 본문 용어집(`/guide/glossary`)이 항상 최신입니다. 링크를 함께 안내하세요.
- 이 텍스트를 통독시키지 마세요. 25분은 “필요할 때 여기로 돌아온다”를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 회차 중에 모르는 말이 나왔는데 이 텍스트에도 없으면 적어두었다가 본문 용어집에 추가하세요.